

인문학의 실천적 영역을 위한 글로벌 지역학 - 케논의 위기극복 사례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

조 헌 구*

本研究は人文学の危機、そしてその危機状況を乗り越えるために実践領域として提示されたグローバル地域学の先決課題を考察したもので、グローバル経済危機とそれを克服していくローカル企業の事例を中心に、企業主体が危機状況を克服するために試みた思考転換のプロセスを通じて接近した結果が導き出されている。具体的にはキャノンの事例を分析した。自分たちが最も得意にしてきたし、最も得意にできるものを中核技術で育て、それを元に勝負したキャノンは結局自分たちの核心力量を維持しながら彼らだけの革新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た。それに、研究者はグローバルとローカルの混在を適切に融合したキャノンの方法を通じて、グローバル地域学の中核技術はグローバル地域学の人材を養成するシステムの構築であることを提示した。地域を舞台にして活動するための実践的方法を学問的に定義して概念を作るのではなく、人文学的な力量を実践する人材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それが人文学の実践領域であるグローバル地域学が進むべき目標であり、そういう人材の養成とそういう人材に対して社会的な需要を引き出す具体的なシステム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かが今後の課題であろう。

キーワード : 人文学, キャノン, 글로벌地域学, 核心力量
(인문학, 케논, 글로벌지역학, 핵심역량)

1. 들어가며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세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때문에 그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조건은 불안에 대한 무지의 극복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 경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 계약교수, jhy1000@knu.ac.kr

무지가 불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낯선 세계에 대한 불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낯선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낯선 세계의 대상화를 통해 인간은 학문을 형성하여 왔다.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낯선 대상이 자연과 관련되면 자연과학, 사회 환경과 관련되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인문학의 경우는 어떨까? 인문학은 낯선 세계의 대상을 인간의 내면으로 인식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즉 낯선 세계=타자이며 이 타자를 인간 내면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인문학의 본질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나 사회 환경 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불명확하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면은 시각적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분석대상이 될 수 없다. 인문학이 이제까지 인간의 현실적인 삶 자체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도입부에서 인문학은 시험대에 놓여 있다. 더 이상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이론 안에 갇힌 생각만으로는 학문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인문학의 실천영역, 그것이 앞으로 인문학이 가장 고민해야만 하는 선결 과제일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사회과학의 실천영역인 경제학과 경영학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참고하고 그에 대한 사고 전환의 프로세스를 통해 인문학의 선결과제에 대해 접근해 가 보고자 한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실천영역이다. 경제학이 인간과 재화의 흐름에 관한 실천적인 학문이라면 그 중에서도 기업의 특정 활동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 경영학이다. 그러나 시스템화 된 부분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온 것에 대해 사회과학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정적이었던 것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인문학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캐논의 사례를 분석하여, 캐논의 역설적인 발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간과 인문학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즉, 일본의 로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결코 인문학이 사회과학과 동떨어진 방향을 걸어온 것이 아니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된 주체들에게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더스트리(Industry)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인문학이 실천영역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지역학의 방법적 시스템 구축의 프로세스를 마련해나가고자 한다.

2. 경영이론의 글로벌적 유행과 그 배경, 그리고 일본

인문학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은 철학과 사상이다. 철학과 사상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인문학에서 철학이나 사상이 가진 「가치」가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의 의도 또는 사상이 함의하는 「가치」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¹⁾고 할 수 있다. 확장하면 경제학 이론 역시 그 시대를 함축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가치」라고 하는 점에서 경제학 이론은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경제구조이며, 경제 변동의 산물이다. 때문에 경제상황이 변하면 경제학 이론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세계경제의 흐름은 자본주의 경제였으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²⁾

1) 人文学及び社会科学の振興について(報告)―「対話」と「実証」を通じた文明基盤形成への道―(平成21年1月20日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審議会 学術分科会) 人文学においては、哲学や思想といった「価値」それ自体が研究対象となるとともに、社会科学においても、社会を構成する人々や集団の意図や思想といった「価値」に関わる問題を取り扱っている。(번역은 연구자에 의한 것임)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attach/1246381.htm(2016.02.12 검색)

2) 박종현(2008)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pp.14-241.

〈표 1〉 18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 이론

아담 스미스 -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
▶ 국제무역 관련하여 국부의 원천은 ‘실물’이지 화폐, 황금 등과 같은 것이 아님을 강조. ▶ 나라 안에 금을 쌓아 둔다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만 늘리고 수입을 규제하는 중상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무역 강조.



〈표 2〉 19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 이론

칼 마르크스 - 자본론
▶ 생산은 자본을 위한 생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정의. ▶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을 예언. ▶ 화폐의 이중성 - 노동자, 자본가들 모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노동자는 회사에서 주는 임금이 더 많아야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표 3〉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경제학 이론

케인즈 - 수정 자본주의
▶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 정부의 경제정책으로서 화폐정책도 중요



〈표 4〉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경제학 이론

하이에크 - 신자유주의
▶ 국가개입의 부당성 강조. ▶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경쟁을 촉진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시장은 가장 발전된 질서이며, 또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자생적 질서임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 19세기는 자본을 형성하는 노동과 그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³⁾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외부적 힘, 즉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수정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와 국가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1973년, 197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일어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는 불황이나 물가는 계속 오름)을 수정자본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해답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⁴⁾

서로의 이론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그 해법 역시 순환의 고리 속에 있지만, 이렇게 세계사 속에서 함께 움직여 온 경제학의 변화는 결국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흐름을 관통하며 이재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3) 마르크스가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전환되는가의 문제였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거머쥔 자본가가 노동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마르크스는 공동체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물질적 힘(기득권)이라는 논리를 펴며 도덕, 법, 정치 등 시장경제의 상부 구조도 사유재산을 소유한 자본가 권익을 위해 형성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지배 계급은 그런 상부 구조를 통해 길들여지는데, 자본가의 착취가 가능한 것도 체제를 위해 훈련된 노동의 순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민경국(2014) 『경제사상사 여행』 21세기 북스, p.115.

4) ‘시장이란 모든 이에게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보장하는 최상의 분배기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케인즈는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하이에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 대한 통제는 인간을 노예의 길로 몰고 갈 뿐”이라 반박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두고 자유방임의 양극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종현(2008) 앞의 책, pp.89-107.

자본과 노동은 19세기와 20세기 경제이론의 두 개의 축이었다. 그것이 고전경제학과 이론이든, 마르크스 이론이든, 케인지안이든, 또는 신고전파 이론이든 간에 말이다. 가치는 이제 ‘생산성’과 ‘혁신’에 의해 창조되는데 생산성과 혁신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결과이다. 지식 사회의 주도적 사회집단은 ‘지식 근로자’일 것이다.⁵⁾

이재규의 분석에서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키워드는 인문학과 경제학의 흐름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다. 경제학을 이끄는 이론 역시 인간사회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것은 철학과 사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지식 집단이며, 그들의 지식을 이루고 형성시켜 가며 혁신을 이루고 있는 배경에는 인문학이 있다.

자본과 노동의 축이 서로의 경제이론을 뒷받침하던 세계 경제는 이후 두 이론의 상호교차가 서로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주기설, 주기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콘트라티예프가 자본주의의 물가주기를 분석하여 경제위기를 50년 주기의 물가 파동으로 설명한 장기파동론이다. 기술 혁신과 거대 신흥시장의 발전에 의해 경제가 진행되는 장기파동론은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학자들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어 콘트라티예프 파동 이론으로 정리 된다. 콘트라티예프 파동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8세기 말에 일어난 산업혁명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나는 철도 건설 붐과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라는 신흥시장의 발전, 그리고 아시아 유럽 간의 교역 증가, 20세기 초반부터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일어났던 전기 화학 산업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헨리 포드가 이끌었던 대량생산 혁명, 20세기 중반부터 일어났던 일본을 축으로 한 아시아의 발전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미국이다.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탄생과 발전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가진 불확실성과 검증 가능성은 경제주체

5) 이재규(2009) 『피터 드러커 명저』39권, 21세기북스, p.311.

로서 아시아를 중심에 두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왜 아시아의 발전은 멈추었을까? 이것은 1990년대 일본이 급속 성장의 황금기를 뒤로 하고 버블 경제 붕괴의 참담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2.1 일본, 1990년대의 시대적 특수성

1980년대 후반 『세계 통째로 HOW매치』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다. 「외국의 오래된 성이나 기업을 얼마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자가 대답하는 퀴즈 프로그램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이 거품경제 시대. 같은 시기에 『세계 통째로 HOW 머치』라고 하는 「성이나 기업을 얼마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자가 대답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인기를 떨치고 있었다. 그 당시, NY의 록펠러 센터를 미쓰비시지소가 매수하거나, 미국의 콜롬비아 영화를 소니가 매수하는 등, 다양한 일본 기업이 해외의 기업을 매수했다.⁶⁾

이것은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대범하고 윤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1982년)에서 나오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코카콜라 선전과, 실제 1980년대 방영된 ‘I feel Coke’를 내세운 밝고 에너지 넘치는 코카콜라 선전 역시 일본의 최대 경제 호황기를 상징하는 여유로운 사회분위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원과 선진 기술을 토대로 한 산업발전이 급격하게 수출을 확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일본사회는 자본이 넘

6) 1980年代後半から1990年代初頭がバブル時代。同時期に『世界まるごとHOWマッチ』という「このお城や企業をいくらで買うか」という質問に回答者が答えるクイズ番組が人気を博していた。あの当時、NYのロックフェラーセンターを三菱地所が買収したり、アメリカのコロンビア映画をソニーが買収するなど、さまざまな日本企業が海外の企業を買収した。(번역은 연구자에 의한 것임) <http://www.mag2.com/p/news/170335/2>(2016.11.29 검색)

어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몰리기 시작하였고, 주가 상승은 개인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과도한 투자는 버블로 이어졌고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땅값과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부동산과 과도한 설비투자는 이익이 아니라 불량채권으로서 돌아와 기업을 압박하였으며, 개인의 소비를 위축시켜 디플레이션을 가속화 시켰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

『비즈니스 위크』지는, 2000년대 중간까지 매년, 시가총액으로 측정한 세계의 톱클래스 회사 1000사의 리스트, 『글로벌1000』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전반까지는, 복수의 은행 이외, NTT, 도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이 톱10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1999년에는 톱10에서 일본 기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989년에는 350사 정도의 일본 기업이 톱 1000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만, 90년대 말에는 150사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난 후 『잃어버린 20년』사이에, 세계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점점 저하되어 갔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의 정체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엔고, 높은 법인세율, 전력 부족 등의 이른바 6중고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요인은, 확실히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⁷⁾

7) 『ビジネスウィーク』誌は、2000年代半ばまで毎年、時価総額で測った世界のトップ1000社のリスト、『グローバル1000』を掲載していました。これによると、1990年代前半までは、複数の銀行のほか、NTT、トヨタといった日本企業がトップ10に入っていましたが、1999年にはトップ10から日本企業が姿を消しました。1989年には350社ほどの日本企業がトップ1000に名を連ねていたのですが、90年代末には150社を割ってしまいました。バブルがはじけた後の『失われた20年』の間に、世界における日本企業のプレゼンスはどんどん低下していったのです。この間、日本企業の停滞の原因としてよく挙げられていたのが、円高、高い法人税率、電力不足などのいわゆる六重苦です。これらの企業にとっての外部環境要因は、たしかに国際競争にさらされている企業にとって不利に働きます。(번역은 연구자에 의한 것임) http://bizacademy.nikkei.co.jp/management/mbaessence_jpnstrategy/article.aspx?id=MMAC0t000030082013(2016.11.30 검색)

위의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 기업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을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환경을 극복한다면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2.2 일본 기업의 위기극복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였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 이들 기업들이 마주한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기업들의 대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잃어버린 10년’, 일본 기업이 마주한 위기와 대처⁸⁾

위기	구체적 위기내용과 그 대처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 기업이 맞닥뜨린 표면적인 위기(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율, 전력부족, 무역자유화에 대한 늦은 대응, 노동규제, 온실효과가스제어
중신고용제의 붕괴	이익성 회복을 위한 다운사이징
메인뱅크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 주주제의 동요	계열회사의 자율경쟁
콩크로 머리트	다각화의 제어가 필요(기업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위의 〈표 5〉에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잃어버린 10년’ 속 일본 기업들은 외부 환경적 요인을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 미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한 것을 알 수 있다.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 기업들은 80년대 일본 기업들에게 잠식당한 미국 기업들이 회생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들을 그들이 다시 벤치마킹하기 시작한다. 즉 미국식 경영학을 받아들여 실천적

8) 정진성·여인만·선재원 공저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p.3-355.

영역에서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경영학이 기업의 생존과 이윤 창출이라는 원초적인 가치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즉 그 당시 세계적 흐름과 함께 유행하던 글로벌 경영이론을 통해 일본의 많은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였다. 아니 극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잃어버린 20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이룩해 낸 성장기 모델을 스스로 붕괴한 것이다. 그리고 성장기 모델의 자기붕괴는 곧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 극복과 동시에 이익성 회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캐논만은 다른 길을 갔다. 즉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본 기업들의 부침 속에서도 캐논은 여전히 흑자경영을 이어나간 것이다.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캐논의 신화가 일본 버블 경제 붕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갔다.

3. 캐논의 역설적 위기극복 사례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버블 경제 붕괴는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위기로 몰고 갔다. 소니, 도시바, 히타치등의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캐논은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유지하며 199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도요타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2003년에는 전기전자부분의 부동의 1위기업인 소니를 넘어섰으며, 도요타가 매출에서 하양곡선을 그릴 때에도 캐논은 줄곧 성장을 이어왔다.⁹⁾

9) 미츠코시 유타카 지음·유준철 옮김(2005) 『세계 일류기업들이 채택한 BCG의 6가지 성공전략』 이지북, pp.228-234.

캐논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왔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게리 해멜은 1989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략 의도(strategic intent)’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이 캐논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미국 회사 제록스는 복사기에 관한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한 막강한 선발 기업이었다. 반면, 캐논은 카메라를 주력으로 하고 뒤늦게 복사기 산업에 뛰어든 후발주자였다. 때문에 복사기 시장에서 구축한 제록스의 제품과 명성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캐논은 카메라와 프린트 사업에서 축적한 정밀기계기술과 광학기술을 중심으로 전자기술을 보완하여 세 가지 핵심기술을 정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기술에 분산 투자한 제록스를 몰리치고 1990년대 이후 복사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¹⁰⁾

캐논의 사례를 통해 게리 해멜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연구투자 개발 비중이 훨씬 높았던 서구기업이 일본기업의 도전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는 일본기업이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기술’과 ‘집중적인 투자’로 대표되는 캐논의 사례는 이후 일반화되어 일본기업의 성장 전략을 설명하는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러한 공식을 바탕으로 서구와 미국 기업들은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일본기업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일본 기업을 분석하여 빠르게 벤치마킹해 나간 서구와 미국 기업들에게 일본기업은 다시 조금씩 시장에서 우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금 캐논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낸다. 이러한 캐논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은 2가지 역설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캐논의 첫 번째 역설은 캐논만의 ‘성장과 집중’이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후 일본 기업이 선택한 회생방법은 <선

10) 게리 해멜 · C. K. 프라할라드 공저 · 김소희 옮김(2011)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 21세기북스, p.172.

택과 집중>, <다운 사이징>이었다. 이것은 1980년대 GE의 최고경영책임자 잭 웰치(John Frances Welch Jr)가 실천한 강력한 구조개혁 전략이다. 잭 웰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20년 만에 GE 영업이익을 16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까지 성장시켰다. 그러나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본 기업들이 실시한 잭 웰치 벤치마킹은 장기적으로 기업구조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근본적인 위기 극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실패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9월에 캐논 사장에 취임한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이후 미타라이)는 ‘경영수법은 세계 공통이지만 고용은 로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캐논만의 잭 웰치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미타라이는 일본의 지속 성장 모델인 전통적인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사업등과 같은 적자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복사기나 프린터에 사용하는 잉크 카트리지 등에 경영자원을 주력하는 독자적인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량 해고 대신 연공서열제의 폐지, 성과급 임금체계를 노동조합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그 결과 캐논은 ‘잃어버린 10년’의 경제불황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고 오히려 성장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캐논이 취한 위기상황에서의 역설은 ‘경영진의 노쇠화’에 대한 주변의 우려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은 것이다.

2015년 스마트폰으로 인한 디지털 카메라의 영업부진이 원인이 되어 캐논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다. 그 결과 주가 역시 하락하여 기업 가치의 감소를 가져왔다. 주변 업계에서는 1995년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미타라이 경영진의 노쇠화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행된 몇 가지 M&A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캐논의 사업실적 악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에 대한 투자가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2016년 캐논은 도시바메디컬시스템스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 합병하였다. 또한 캐논은 먼저 스웨덴 CCTV업체 엑시스커뮤니케이션을 28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스마트폰의 대두로 카메라 매출이 줄어들자 M&A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이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시금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서 캐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점인 정밀기계기술과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감시카메라, 산

업인쇄, 의료기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위기극복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¹¹⁾

4. 인문학과 글로벌 경제의 접점(구조-해체-융합)

캐논은 어떻게 글로벌적인 경영학 흐름을 과감히 로컬적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역설을 생각해 낼 수 있었을까? 캐논의 역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과 로컬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영은 경제학의 이론적 실천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여 왔다.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주로 다루는 방법이다. 장하준은 경제학을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을 다루는 지극히 정치적인 학문으로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경제 상황과 특정 도덕적 가치 및 정치적 목표하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경제 상황과 특정 도덕적 가치 및 정치적 목표하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갖추 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우는 일이다”¹²⁾라고 하여 고전적인 경제학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이와 같이 지금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학제(Interdisciplinary)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에는 일정한 사이클을 둔 유행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행은 현재 글로벌리즘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동·서 냉전시대가 끝이 나고 세계는 글로벌리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11) 캐논은 광학, 이미지 처리, 정밀 기계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광학기기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혁신 제품을 내놓고 있다. 캐논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41%를 달성했다. 또 미국 특허등록 4134건으로 IBM과 삼성에 이은 3위를 기록해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5345csidx6e5bcab023c6289a7a47b3b4f0477e4>(2016.11.23 검색)

12) 장하준(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p.15.

글로벌리즘 속에서 여러 경제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립하는 시장관계는 글로벌 시장을 형성시켰다. 즉, 세계 경제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통합되어 국가 간 교역에 대한 규제가 점차 사라졌다. 그로 인해 세계는 단일한 시장체제인 글로벌 시장화 되었으며, 상품교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의 우수한 인적자원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 확장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극대화시켜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기업에게 많은 이익 창출의 기회만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기술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발되는 여러 유형의 위기 상황들은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로컬 기업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위기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때문에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세계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장 작은 구성원들(또는 최소 경제단위)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의미로 글로벌 패러독스(global paradox)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로 전환되었기에,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소 전략niche strategy을 써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해체시켜 새로운 구조, 즉 다수의 자율적 기업 단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실제적으로 성공을 이룩한 기업들의 시스템은 각각의 지역기업들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적 경영이론의 유행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로컬 기업들의 위기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구성원들이 가진’ 로컬적인 요소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융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융합’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미는 학문과 실제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로 혼재하고 있다.

13) 존 네이스비트 지음·정성호 옮김(1994) 『글로벌 패러독스』 세계일보, pp.17-26.

융합(融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는 일’을 뜻한다. ‘융합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둘 이상의 물질이 녹아서 하나로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결합을 통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즉, $1+1=2$ 가 아니라 $+a$ 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 한다.¹⁴⁾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컨버전스(Convergence)로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통용되는 ‘융합’은

- ① 융합을 學際(Interdisciplinary)로 이해하는 경우
- ② 융합을 퓨전(fusion)으로 이해하는 경우
- ③ 융합을 수렴의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 ④ 융합을 통섭(統撰), consilience로 이해하는 경우¹⁵⁾

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문과 실제 영역에서 저마다의 기준으로 ‘융합’을 이야기하고 의미 구조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도 사회전반에 걸친 지금의 혼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때문에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상호작용 또는 ‘융합’은 의미구조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캐논의 역설은 글로벌과 로컬의 ‘융합’을 설명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하나의 실례로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과 로컬의 ‘융합’, 의미 구조의 새로운 구축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인문학적인 어프로치가 기능할 수 있는 또는 기능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캐논의 역설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융합’ 개념은 소니의 창립 멤버이자 모리타 아키오(Morita Akio, 1921~1999)가 가장 먼저 창조해 내었다. 모리타는 “사고와 전략은 글로벌하게, 행동과 운영은 로컬하게 Firms may

14) 신동희(2014) 『창조경제와 융합』 커뮤니케이션북스, p.15.

15) 신동희(2014) 앞의 책, p.15.

be multinational but all business is local”¹⁶⁾라고 하여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을 혼합하는 기업 원리로 글로벌 로컬리제이션(global localization)을 줄여서 만든 glocalization(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우리는 유럽에 직접 투자를 해서 유럽 기업이 되면 거기서 받아들여진다고 믿고, 어떻게 하면 유럽 기업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여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의 주문을 현지화(現地化)하고 권한도 본사로부터 대폭 위임시켰다. 또 현지의 각 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공동체에서 좋은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를 ‘글로벌 로컬리제이션’이라고 기업 슬로건화하는 한편, ‘동기 개혁’, ‘의식 개혁’을 진행시켰다.¹⁷⁾

모리타에 의해 제기된 글로컬리제이션은 이후

글로컬리제이션은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화가 글로컬리제이션을 낳고, 글로컬리제이션은 국가의 퇴조에 일조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초국가적 행위자를 등장 시키면서 국가 하위 체계로의 권력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분권화를 가져온다.¹⁸⁾

글로컬리제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글로컬리제이션의 와중에서 넓은 범위의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과정(integration)과 좁은 범위의 공동체로 분화되는 과정(fragment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미

16) Jan Nederveen Pieterse(2004) 『Globalization and Culture: Global Melang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50.

17) 모리타 아키오 지음·박태건 편저(1993) 『신자유경제를 위한 제언 1·2·3』 『초국가시대로의 초대 : 미·일 두뇌집단이 제시하는 21세기 개혁프로그램』 풀빛, p.236.

18) 임혁백 지음·김경원·임현진 공편(1995) 『세계화와 민주화: 타고난 동반자인가, 사귀기 힘든 친구인가?』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pp.117-118.

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는 분합(fragmegr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¹⁹⁾

‘글로벌리즘’에서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다시 ‘분합’으로 이어져 ‘글로벌 패러독스’가 생성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이 연구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인문학적 접근과 흐름을 같이한다. 인문학 역시 경영학 이론의 유행과 비슷한 패턴의 사상적 흐름을 이어왔다.

20세기 인문학은 개인을 넘어 구조를 이야기하였으며, 그 구조에 대한 해체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다시 21세기, 해체된 모든 것은 다시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의 사회구조는 해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융합’하면서 인문학은 혁신을 정의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장 잘 하고 있었고,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핵심역량으로 키워 그것으로 승부한 캐논은 결국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그들만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기업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이고 꽃이나 열매는 최종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좋은 꽃과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를 성장시키는 양분을 제공하는 뿌리 부분이 바로 핵심역량이다. 경쟁의 판도는 나무의 과실에 해당되는 최종 제품의 우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핵심역량에 의해 결정된다.²⁰⁾

유행하는 경영이론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핵심 역량을 유행하는 옷으로 바꾸어 입힐 줄 아는 것이 그들이 역설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19) 조지프 나이 지음 · 홍수원 옮김(2002) 『제국의 패러독스』 세종연구원, p.104.

20) 게리 하멜 · C. K. 프라할라드 공저 · 김소희 옮김(2011) 앞의 책, p.362.

5. 나오며

지금 글로벌 경영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적인 경제는 현재 혼재하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의 ‘융합’으로는 불가능하다. ‘융합’의 개념으로 예술적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추가된 ‘매시업’등도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캐논이 선택한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경영이론의 역설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운사이징’의 또 다른 이면, 즉 ‘선택과 집중’을 ‘다운사이징’으로 이어가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여 장점인 사업만을 선택하여 키워내는 전략이다. 이러한 캐논의 전략은 두 가지 모두 본질로서 혼재함을 인정한 인문학의 헤테로토피아적 창조 공간과 맞닿아 있다.

21세기,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인문학은 실천영역을 담당할 새로운 학문적 영역으로서 글로벌 지역학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개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역량을 실천할 인재를 만들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인문학의 실천영역인 글로벌 지역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인재 양성과 그 인재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형성과정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민경국(2014) 『경제사상사 여행』 21세기 북스, p.115.
 박종현(2008)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pp.89-107.
 신동희(2014) 『창조경제와융합』 커뮤니케이션북스, p.15.
 이상석(2011) 「戦後日本經濟の高度成長研究」 『일본어문학』 55집, 일본어문학회, pp. 567-592.
 이재규(2009) 『피터 드러커 명저 39권』 21세기북스, p.311.
 임혁백 지음 · 김경원 · 임현진 공편(1995) 「세계화와 민주화: 타고난 동반자인가, 사귀기 힘든 친구인가?」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pp.117-118.

- 장하준(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p15.
- 정진성 · 여인만 · 선재원 공저 『일본의 기업과 경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p.3-355.
- 조원준(2006)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32집, 일본어문학회, pp.581-596.
- 황달기(2016) 「일본의 토착산업(地場産業)과 지역문화」 『일본어문학』73집, 일본어문학회, pp.445-464.
- 게리 하멜 · C. K. 프라할라드 공저 · 김소희 옮김(2011)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 21세기북스, p.172.
- 모리타 아키오 지음 · 박태권 편저(1993) 「신자유경제를 위한 제언 1·2·3」 『초국가시대로의 초대 : 미·일 두뇌집단이 제시하는 21세기 개혁프로그램』 풀빛, p.236.
- 미즈코시 유타카 지음 · 유준철 옮김(2005) 『세계 일류기업들이 채택한 BCG의 6가지 성공전략』 이지북, pp.228-234.
- 조지프 나이 지음 · 홍수원 옮김(2002) 『제국의 패러독스』 세종연구원, p.104.
- 존 네이스비트 지음 · 정성호 옮김(1994) 『글로벌 패러독스』 세계일보, pp.17-26.
- 大倉雄次郎(2015) 「キャノンのキャッシュフロー経営における事業・会計システムの研究」 『関西大学商学論集』59、関西大学商学会, pp.83-105.
- 坂本恒夫(2016) 「日本企業はどうしたら再生できるか—グループシナジーをアジアに解放せよ(1)」 『経営論集』63、明治大学経営学研究所, pp.25-45.
- 飛田努(2003) 「メインバンクシステム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と経営不振企業への支援の実態—1990年代の銀行融資の実証分析を中心に—」 『立命館経営学』42巻第1号、立命館大学, pp.111-127.
- 三輪芳朗 · J.マーク.ラムゼイヤー(2001) 『日本経済論の誤解』 東洋経済新報社, pp.1-432.
- 村松岐夫 · 奥野正寛編(2002) 『平成バブルの研究〈上〉形成編—バブルの発生とその背景構造』 東洋経済新報社, pp.1-452.
- Jan Nederveen Pieterse(2004) 「Globalization and Culture: Global Melange」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50.
- <http://www.eto.com.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15345#csidx6e5bcab023c6289a7a47b3b4f0477e4>(2016.11.23 검색)
- http://bizacademy.nikkei.co.jp/management/mbaessence_jpnstrategy/article.aspx?id=MAC0t000030082013(2016.11.30 검색)
- <http://www.mag2.com/p/news/170335/2>(2016.11.29 검색)
-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attach/1246381.htm(2016.02.12 검색)

〈Abstract〉

Global Regional Studies for the Practical Use
of the Humanities

– Focusing on the Humanistic Approach to the Case where Canon
Overcame the Crisis –

Cho, Hun-Goo

In order to examine the pre-existing problems of global regional studies, the present article tries to approach this issue through the entrepreneurs' thinking process, focusing on the local companies which have attempted to overcome their critical economic situations. In this paper, Canon Inc. is analyzed in detail. Canon Inc., which has developed its fields of expertise, has been able to achieve their own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their core competencies.

Through Canon's method of properly combining the global with the local, the core competence of global regional studies has proven to build a system which cultivates human resources for global regional studies. The practical way to act on the stage of the region is not to define and create academic concepts but to create human resources suited to perform humanistic capacity. This should be the goal of global regional studies, a practical area of the humanities. Furthermore, it is left for future work to train human resources and to construct the system which can create the justification for the social demand of human resources.

Key words : the humanities, global regional study, Canon Inc., core competency

투 고 일 : 2017 년 1월 10일

심 사 일 : 2017 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2월 7일